

광주·전남 '高물가' 여전

8월중 소비자물가지수 각각 4.8%, 5.1% 상승 석유류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가격은 안내려

지난달 광주·전남은 우유값과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증가율이 10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 비해 4.8%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도 5.1%나 올랐다.

항목별로는 양파값이 한 달새 21.4% 오른 가운데 ▲콩(14.7%) ▲우

유(14.4%) ▲금반지(10.4%) ▲치즈(9.1%) 등의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같은 기간 휘발유값이 4.9% 떨어지고 경유값도 6.4% 하락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은 여전했다. 전반적인 석유류의 가격이 1년 전보다 40% 이상 치솟은 데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지난달 한 달간 포도도 오이값이 각각 31.5%, 18.0% 떨어졌지만, 토마토(22.8%)와 우유(19.5%), 배추(16.5%) 등의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또 전남의 경우 부침가루 가격이 1년새 68.5% 오른 것을 비롯, ▲등유(57.3%) ▲금반지(45.8%) ▲밀가루(42.7%) ▲LPG(35.8%) 등의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물가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이들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되레 크게 치솟았다.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1%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4.9%), 6월(5.5%), 7월(5.9%) 등으로 증가폭이 커지다 8월(5.6%)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둔화됐다.

하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1% 올라 1998년 8월(5.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값이 44.4% 떨어진 가운데 무와 파값이 각각 34.1%, 30.9% 하락하는 등 농산물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편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주요 생활품(52개)의 경우 25개 품목의 가격이 전달에 비해 상승한 반면 10개는 하락했다. 나머지 17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조선 3호 벌크선도 띄웠다

(17만500t급)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2일 해남조선소에서 또다시 17만500t급 벌크선을 진수한다.

지난 6월과 9월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발주한 2척의 벌크선을 성공적으로 진수, 인도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진수다. 대한조선은 세번째 선박까지 건조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품질 면에서도 선주들로부터 '완벽하다(Perfect)'는 찬사를 받고 있다.

국내 선사 첫 발주 오늘 진수식 ... 11월 인도 건조기간 대폭 단축 ... 납기·품질 완벽 찬사

특히 네번째 선박건조 공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연간 8척 건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견조선소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날 진수하는 선박 HN-1017은 지난해 7월 착물해운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289m, 폭 45m 크기로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운반용이며, 대한조선이 수주한 43척의 선박 중 국내 선사가 발주한 첫 선박이다.

도크 내 용골거치 후 2개월여 만에 건조가 완료된 HN-1017호는 이날 정오에 본선 부양이 이뤄져 안벽으로 옮겨진다. 안벽에서 두달여 동안 후행 의장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끝낸 뒤 예정대로 11월 중순 선주인 창명해운에 인도한다.

네번째 건조 선박(HN-1003) 역시 공정을 40%를 웃돌고 있다. 골든오션그룹이 대한조선에 발주한 8척의 선박 중 세번째 선박인 HN-1003호는 오는 11월 진수를 거쳐 12월말 선주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박재영 대한조선 부회장은 "그동안 세 척의 배를 지으면서 건조기간이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며 "이는 대형조선소에서나 가능한 일로, 뛰어난 기술력과 무제한 달성을 통해 대한조선은 중견조선소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만 모두 4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인도할 예정인 대한조선은 1도크 확장 및 공정단축

을 통해 내년에는 연간 8척 건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사내 혁신마당'을 개최하는 등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조선은 대한조선만의 강점을 살려 중견조선소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대한조선은 다른 신생조선소와 달리 수주한 선박 43척(3조3천억 상당) 중 19척에 대해 R/G(Refund Guarantee·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받았다. 이미 2척의 선박을 인도했고, 올해에만 2척의 선박을 더 인도할 수 있게 된 만큼 추가 R/G 발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한조선은 120여명의 자체 설계인력이 수주한 선박의 선형부터 키플랜(Key Plan·3대 구조도면)까지 직접 시행함으로써 대한조선만의 특색있는 선박을 건조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설계인력이 부족해 외부업체에 설계도면을 사오는 것이 부지기수인 것에 비하면 대한조선의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함께 대한조선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으로 업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프랑스·네덜란드 기업 "전남도에 투자 하겠다"

박준영 지사 등 투자유치단에 밝혀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강유양단지 조성기업과 네덜란드의 대규모 화폐기업이 잇따라 전남지역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유럽순방 나흘째 프랑스의 ACCOR사를 찾아 전남지역 투자유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CCOR사는 1967년 설립된 지난해 순수익이 1조4천억원, 총 자산이 10조8천억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으로 전세계 140개국에서 4천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해의 관광자원을 가진 전남에서 ACCOR사가 구상 중인 건강유양단지 조성사업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돕겠다"고 말했다. ACCOR사는 투자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전남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투자유치단은 또 네덜란드의 화폐기업인 BLOOM사도 방문해 전남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이끌어 냈다.

BLOOM사는 연간 30억 구를 생산해 3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화폐기업으로, 아시아 시장 거점 확보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BLOOM사 관계자가 전남 무안, 곡성 등을 직접 찾기도 했으며 이번 상담에서 99만㎡ 규모의 시설제비 면적을 희망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의향을 나타냈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천연소재로 만든 앨범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스킨케어장은 1일 화학섬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천연소재로 인체에 무해한 핸드메이드 노트와 앨범을 선보였다. 노트 4만~5만5천원, 앨범 1만2천~15만원. (광주신세계 제공)

내년 中소 창업 1조3천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창업지원에 올해의 두 배 가까운 1조3천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상업화 사업에 100억원을, 예비창업자가 연구기관 등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지원하는 신기술창업인턴사업에 36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 210억원을 들여 교수·연구원 등이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입주비, 아이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지원사업에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또는 원부자재 자금 등을 융자하는 창업활성화자금에 올해보다 56% 늘어난 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내수 점유율 30% 넘었다

9월 판매대수 2만4천여대 ... 8년만에 돌파

기아차 내수시장에서 93개월 만에 점유율 30%를 넘어섰다.

기아자동차(주)의 9월 내수판매는 2만4천322대로 시장점유율 31.0%를 기록, 2000년 12월 32.9%를 기록한 이래 7년 9개월 만에 30%대의 벽을 돌파했다.

쏘울·포르테·로체 이노베이션 등 최근 잇달아 출시된 신차들이 크게 인기를 끌며 기아차의 내수판매를 이끌었다.

지난달 22일 출시와 함께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차'로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개념 CUV 쏘울은 7일만에 2천379대가

파워를 돌파했다. 판매대수는 지난달 30일까지 1천170대를 기록했으며 아직 1천여 명의 고객들이 쏘울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어 10월 판매도 당초 목표인 3천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준중형 신차 포르테도 9월 한달간 4천36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기아차의 월평균 준중형 판매대수 1천300대의 세배가 넘는다. 8월말 출시된 포르테는 아반떼를 200여대 차이로 추격하며 단숨에 준중형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밖에 로체 이노베이션이 3천904대, 모닝이 4천300대가 판매되는 등 경차·준중형차·중형차는 물론 CUV

까지 기아차는 다양한 신차를 앞세워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기아차의 연간 내수시장 점유율은 1995년 30.4%, 2000년 28.5%를 기록한 이래 최근 몇년간 22~23%에 머물러왔으나 올해 초 출시된 모닝이 경차 돌풍을 일으키면서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아차의 9월 판매는 내수 2만4천322대, 수출 7만2천412대 등 총 9만6천734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신차 돌풍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5% 증가했으나 인당합 찬반투표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수출은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법원경매 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감평가	최저가	현황
부산동	무등리33	1억1천5백	8천	2억9천8백
화정동	모이리46	1억7천	1억1천	2억9천8백
진월동	중흥33	9천5백	6천650	5천5백
대곡동	삼익32	8천1백	5천670	5천5백
인제	세한24	4천8백	3천220	3천220
화동	삼익리45	1억5백	1억1천	1억1천
도산동	호안24	5천3백	3천710	3천710
문흥동	대우리33	6천2백	4천340	4천340
주월동	현대31	9천3백	6천510	6천510
월계동	리안36	1억1천	7천700	7천700
금호동	리안32	8천9백	6천230	6천230
▶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황
신안동	61/40	1억4천2백	7천9백	1억1천7백
문암동	60/62	2억7천	1억9백	1억9백
유동	94/144	2억6천8백	1억8천8백	1억8천8백
유신동	188/193	10억5천	7억4천	7억4천
누문동	40/34	4억3천5백	3억8백	3억8백
학동	110/259	8억1천8백	4억9천8백	4억9천8백
월곡동	109/259	9억5천	5억3천	5억3천
중흥동	117/295	8억8천8백	5억6천2백	5억6천2백
▶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황
신안동	66/30	1억4천2백	7천9백	1억1천7백
중흥동	48/52	1억1천8백	8천3백	8천3백
소촌동	57/55	8천8백	4천970	4천970
문암동	41/58	1억4천2백	1억1천	1억1천
오리동	43/50	1억3천4백	9천8백	9천8백
두암동	39/41	9천8백	4천73	4천73
중흥동	34/17	6천1백	2천760	2천760
▶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황
쌍촌동	63/148	4억2천8백	2억9천8백	2억9천8백
동암동	61/147	3억9천	2억9천8백	2억9천8백
송정동	100/190	4억4천750	3억1천8백	3억1천8백
계림동	65/119	3억9천	2억9천8백	2억9천8백
두암동	56/104	2억4천3백	1억9천8백	1억9천8백
유촌동	60/133	1억4천8백	1억7천8백	1억7천8백
충정로2가	59/195	14억7천7백	8억2천7백	8억2천7백
주월동	47/63	1억3천1백	5천8백	5천8백
두암동	62/171	5억3백	2억9천8백	2억9천8백
중흥동	71/162	3억1천4백	1억7천8백	1억7천8백
월계동	55/22	2억2천	9천8백	9천8백
화정동	금호리38	8천5백	3천8백	3천8백
동림동	삼가리51	5천5백	2천4백	2천4백
상가	오차동	삼가리10	2천	1천1백
상가	계림동	40/2	4억6천3백	2억9천8백
중흥동	15/2	6천3백	3천5백	3천5백
오피스텔	계림오피스	10/2	4천	1천7백
동원오피스	11/2	4천8백	2천	2천
구영리길	20/2	9천5백	5천3백	5천3백
금호리길	15/2	7천	3천1백	3천1백
▶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황
신안동	전627평	4억9천	2억2천3백	2억2천3백
중흥동	전448평	7천8백	4천4백	4천4백
목동공장	636/300	5억9천8백	4억4천5백	4억4천5백
나주노안	대107평	1천130	6천34	6천34

초유가시대 ~! 기름 한드럼에 30~40만원~!!

저탄소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 난방, 온수 근심걱정 해결

홈페이지 : www.돌고래보일러.kr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용 시설에 최적합.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지금 즉시 신청 하십시오/시범주택 보급가격

MODEL	소비전력 (KW/h)	표준난방(평)	기름값대비(비교대상) 소비자가격
ED50-1.5KW	1.5KW	18㎡ (5~7)	₩248만원
ED50-3KW	3KW	35㎡ (10~12)	₩350만원
ED100-6KW	6KW	70㎡ (20~25)	₩418만원
ED210-10KW	10KW	100㎡ (30~35)	₩475만원
ED210-16KW	16KW	140㎡ (45~50)	₩538만원
ED210-20KW	20KW	185㎡ (55~60)	₩598만원
ED430-30KW	30KW	270㎡ (80~90)	₩679만원
ED430-38KW	38KW	340㎡ (100~120)	₩776만원

(설치비 전액 3년간 분할)

(설치 및 AS) **대우일렉서비스** DC
서비스 문의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88-0062
언제 어디서나 Yes!! 가족처럼 소중한 고객을 위해 감동서비스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원격 시공 - 설치교과

★ 청정연료인 전기에 의해 사용으로 유가 인상 및 유류가스 걱정이 없으며 수평과 전 교각 걱정이 없습니다

특허번호 0751485호
국제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특허출원 10-2007-0082-632

무로 상담전화 **080-909-0088**